

## 미산이앤씨 ‘제로너스 세탁세제’, 올해의 녹색상

미산이앤씨는 계면활성제를 대체하기 위해 식물성 조성물 제조기술로 처음 개발한 순식물성 세탁세제 ‘제로너스’가 ‘올해의 녹색상’을 수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의 녹색상은 소비자의 녹색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녹색 상품 생산을 독려하고, 녹색상품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민단체인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의 녹색상품 선정위원회가 수여하는 상이다.

제로너스 세탁세제는 식물지방산과 식물성 미생물을 자연 복합중화하는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이다.



이광희 미산이앤씨 대표(오른쪽)가 올해의 녹색상품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산이앤씨가 출시한 순식물성 세탁세제 ‘제로너스’.

원료 채취, 원료 가공 및 제조 과정이 저탄소 공정이며, 소비 과정에서는 모든 성분이 생분해 돼 석유계 탄소 발생이 없는 전형적인 환경적 제품이다. 더욱이 두부순물로 빨래를 해온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참고해 개발한 ‘계면활성제 대체용 식물성 조성물’ 기술을 적용했다. 인체와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생활화학제품을 생활안심

제품으로 전환하면서, 식물성 세제임에도 합성세제보다 우수한 세정력을 입증해 산업용 세정제까지 적용 분야를 확대했다.

제로너스는 전 성분이 피부에 유익한 식물 성분으로 구성돼 피부 자극이 없어 아토피인과 유소아용의 류도 안심하고 맨손으로 빨래할 수 있는 안심 세탁세제다.

김진후 기자 jhkim@